

渤海上京龍泉府遺址

崔 茂 藏 譯

黑龍江省 寧安縣 東京城附近的 渤海古城은 唐代渤海上京龍泉府遺址이다. 이 遺址는 남쪽에 경치가 그림과 같은 鏡泊湖가 있으며 북쪽에 푸른물이 흐르는 牡丹江이 둘러싸고 있는 規模가 宏大하고 氣勢가 웅장한 中國唐代渤海文化의 重要 遺存이다.*

1

唐代渤海는 中國東北의 少數 民族인 靺鞨人(譯者註=高句人을 무시한 것은 中國人들의 잘못된 史觀에 의한 것임)이 建立한 地方政權이다. 靺鞨은 東漢과 魏晉時에는 挹婁라고 稱하였고, 南北朝時에는 勿吉, 隋와 唐時에는 靺鞨로 稱한 中國古老民族인 肅慎의 後裔, 女真人과 滿族(洲)人의 先祖이다. 靺鞨에는 七部가 있었는데 그중에 粟末水(松花江上流)에 오래 居住한 粟末靺鞨이 상당히 強大하였다. 紀元 7세기말(698년)에 粟末靺鞨은 首領 大祚榮의 영도하에 奧婁河(今日 牡丹江) 上流의 東牟山(今日 吉林省敦化附近)을 거점으로 “震國”이라는 나라를 建立하였다. 紀元 705년에 唐中宗이 遣侍御史 張行岌를 “震國”에 보내어 招慰하니 大祚榮이 次子 門藝를 唐朝에 보내어 臣服을 표시하였다. 기원 713年(唐玄宗開元元年)에 唐朝는 大祚榮의 管轄지역을 忽汗州로 삼고 鴻臚卿 崔忻을 “使持節宣榮靺鞨使”로 命하여 “震國”에 파견해서 大祚榮을 忽汗州都督, 左驍衛大將軍, 渤海郡王으로 冊封하였다. 이때부터 粟末靺鞨等은 “去靺鞨號, 傳稱渤海”(靺鞨이라는 稱號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渤海라고만 불렀다)가 되고, 唐朝中央政府管轄下의 하나의 州가 되었다.

渤海는 大祚榮때부터 마지막왕 大諲譔이 契丹에 의해서 攻滅될 때까지 모두 15代, 229年間 지속되었다. 발해국이 가장 번성할때 “地方五千里”(新唐書·渤海傳)를 5京 15府 62州 130餘縣으로 나누었다. 그 管轄지역이 북쪽으로 黑水靺鞨에 이르고 東쪽으로 日本海에 이르고, 서쪽으로 契丹에 接하고 南쪽으로 鴨綠江泊汜口一帶(今日 遼寧蒲石河口)까지 이르러 현재 中國東北地域 大部分과 소련 沿海州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渤海와 唐中央政府의 관계가 밀접하여 사람들은 山川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渤海와 中原內地 사이를 往來하였다. 渤海官員이 長安朝覲에 와서 進貢한 일이 130餘차례나 된다. 唐朝中央政府에서도 渤海에 파견한 官員이 적지 않다. 渤海의 政治, 經濟와 文化는 唐朝의 영향을 받아 社會분위

*이 글은 陳顯昌의 唐代渤海上京龍泉府遺址(文物, 1980年 第9期, pp. 85~89)를 번역한 것인데 渤海에 대한 歷史的인 인식이 우리와는 關이 하지만 이런 점만 감안한다면, 渤海史 및 渤海美術史研究에 훌륭한 資料를 제공해줄 것이다.

기가 언제나 中原內地를 모방하였다.

渤海各族人들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용감하였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民族文化의 基礎上에 中原文化를 吸收하여 絢麗多彩한 古代文明을 創造하였다. 渤海는 발달된 農業과 牧畜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規模가 상당히 컸으며, 工藝수준으로 手工業과 建築業이 대단히 높았다. 上京龍泉府의 氣勢가 宏偉하고 巍然壯觀한 것은 바로 渤海經濟發展의 集中된 表示이고 또한 渤海文化가 高度로 발전된 것을 代表하여 주는 典型이다.

渤海政權建立初期에 그 都城이 吉林省敦化敦東城에 있었다. 이 城을 또 鄂多里, 鄂多力라고 부르는데 歷史에서는 “舊國”이라고 稱한다. 그것은 주위의 길이가 1,000 m 가 못되는 古城으로서 渤海의 發祥地와 初期政治中心이 되었다. 후에 經濟, 文化의 發展과 渤海國勢가 日益強大하여짐에 따라서 規模가 狹小한 “舊國”은 적합하지 않았다. 北方各族에 對한 統治를 強化하기 위하여 渤海王室과 貴族은 새로운 都城을 建立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文獻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 747—751년 경에 渤海가 顯州에 建都하여 中京顯德府라 稱하였다. 기원 755년경 三代文王 大欽茂는 다시 上京龍泉府로 수도를 옮겼다. 30餘年後에 다시 수도를 東京龍原府에 옮겼다. 기원 794년에서 795년 사이에 五代 成王 大華嶼는 다시 王都를 東京에서 上京龍泉府로 옮겼다. 이후부터 上京은 都城이 되고 渤海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上京이 두차례 수도가 되어 모두 160餘年간으로 渤海國都中 가장 오래되고 規模가 제일 크다. 이것은 渤海의 統治地區가 점점 黑龍江과 우수리(烏蘇里) 江流域方向으로 擴展되고 政治中心이 북쪽으로 옮겨가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同時에 上京의 地理的 位置와 自然環境이 좋은 것에도 연유가 된다. 上京龍泉府는 鏡泊湖以北, 牡丹江中流의 冲積平原에 位置하는데 이곳은 稻米, 잉어, 붕어, 人蔘, 담비, 사슴이 풍부하고 交通이 便利하며, 地勢가 험한 반면, 氣候가 온화하고, 物產이 풍성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唐代渤海가 이곳을 都城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斟酌과 選擇을 한 것이다.

上京龍泉府에 都城을 만든 것은 8世紀中葉에 營建한 것으로 三代 文王 大欽茂가 創建한 것이다. 大欽茂가 王으로 50年間 재직하였는데 歷代渤海郡王中 그의 統治의 期間이 가장 길었고 “文治”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는 漢籍經典을 깊이 익히고 中原文化를 欣慕하여 佛教와 儒家思想을 크게 提倡하였다. 上京龍泉府의 營建規模로 唐朝長安을 모방한 것은 大欽茂가 唐文化의 影響을 받은 結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現在 上京外城規模는 대부분 大欽茂時에 이미 基礎가 奠定되었다. 그리고 宮城建築이 短期로 建成된 것은 결코 아니다. <遼史·地理志>의 기록에 의하면 11代 渤海王 大彝震統治期에 “擬建宮闕”(궁궐건축계획)은 바로 宮城殿閣에 대한 擴張, 增築을 進行한 것이다. 今日의 上京宮城, 禁苑內建築址는 大部分이 大彝震增建後의 遺存이다.

2세기를 통하여 營建한 上京은 街道가 넓고 市區가 繁華한 大城市이다. 城區內의 門樓, 寺刹, 官邸, 衙署 등이 高大하고 華麗하다; 宮城, 殿閣, 亭樹 등이 높이솟아 壯觀을 이루고 있다.

기원 926年, 遼가 渤海를 멸망시키고, 遼太祖는 渤海를 東丹國으로 改稱하고, 上京을 天福城으로 改名하였다. 그리고 太子倍를 東丹王으로 封하고 渤海舊地를 統治시켰다.

渤海가 멸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遼太祖가 죽고 次子 德光이 繼承하니 이가 곧 遼太宗이다. 王位繼承 문제와 統治階級部에 矛盾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遼太宗은 東丹王室, 貴族에 얽힌 통제와 渤海人民의 反抗을 防止하기 위하여 기원 928年 東丹王都를 天福城에서 東平(今日 遼陽)으로 옮기는데 그때 상황은 “盡遷其民”(그 백성도 모두 이주하였다)이었다. 그때부터 上京龍泉府는 대단히 심한 파괴를 당하였다. 現在 建築址中에서 발견된 많은 불에 탄 土, 石, 磚, 瓦 등의 유물을 관찰하면 城區內의 官邸民宅, 門樓, 宮殿 등의 대다수가 火災를 당하였다. 또 上京龍泉府는 이때부터 文獻에 記錄되지 않았다. 長期間 堙滅되어 갈대숲에 감추어져 있었다.

清初에 上京은 이미 廢墟되어 있었다.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와같이 龐大한 遺墟를 발견하고 모두 깊이 驚嘆을 한다. 이때부터 이 廢墟가 다시 文獻上에 기록되기 시작하여 最初로 그곳을 묘사한 책은 清初 張賁의 <白雲集>이다. 이 책에서 當地 宮殿과 附近 遺迹情況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그곳을 “東京城”이라고 指稱하고 있다. 當時의 研究者들은 대부분이 “東京城”이 金代上京會寧府故址라고 誤認하고 있었다. 清末과 民國年間に 많은 外國人이 이 遺墟를 조사하여, “東京城”이라는 이름은 곧 國外에 알려졌다. 中外學者들의 多年間에 걸친 研究와 考證에 의하여 마침내 그곳은 渤海上京龍泉府遺址로 確認되었다.

2

渤海上京龍泉府는 唐長安省을 모방한 建築物로서 現存 城址, 宮闕, 街坊等 遺址는 모두 長安城의 風格과 特點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城址를 관찰하면 外城으로부터 시작하여 內城, 宮城等 三大部分으로 組成되었다. 宮城은 內城內에 있고 內城은 外城區北部正中에 位置하고 있으며 坐北朝南하여 三城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배치는 웅장하다.

1) 外城址

外城은 市民 居住區이다. 今存 遺址와 遺物은 外城牆, 街坊, 寺址와 石燈, 石佛等이다.

外城牆: 外城垣(담원)의 길이는 5.5 km, 中間이 北쪽으로 突出하고 寬度는 內城과 같다; 南城垣의 길이는 약 5 km 이다; 東城垣과 西城垣의 길이는 각 3.5 km 이다; 周長이 17 km 이상이다. 土石間築이 대단히 堅固해서 비록 1200年以上 風雨剝蝕당하였지만 今日的 城垣은 여전히 선명하게 노출되어 있다. 城垣 여러곳의 殘高가 2 m 정도, 基寬 7—10 m, 頂寬 2—3 m로서 當時 外城이 相當히 高大하고 雄厚함을 알 수 있다. 外城城門의 實地調查結果, 文獻上에 기록된 “四面七門”이 아니고, 外國學者들에 의하여 기록된 “四面八門”도 아니며, 그것은 四面十門, 즉 東西各二門, 南北各 三門이다.

街坊: 考古發掘을 통하여 外城內에 다섯 줄로 넓고 곧은 大街가 있는 것을 確認하였다. 南과 北으로 平行 三條, 東西向으로 三條로서 分制되었으며, 十座城門과 連接되어 있다. 街道의 一般的인 幅이 40 m, 다만 南北向大街中の 正中一條 幅이 88 m인데, 이 길은 內城南門에서 外城正中南門으

로 통하는 길이다. 이러한 大街은 唐朝長安朱雀大街를 똑같이 모방하여 전체 外城을 東西二區로 나누고 있다. 長安과 마찬가지로 街道兩旁은 “坊”(居民區)으로서 商人, 手工業者와 農民 등이 居住하는 곳이다. 街道는 對稱으로 배열하여 大小가 대개 같다. 每坊 길이가 약 500 m, 幅이 약 400 m이고, 坊과 坊사이에는 相通되는 골목길이 있다.

寺址：上京外城內에서 10基 寺址가 발견되고 또 城郊外에서도 발견하였다. 一般的으로 말하면 寺址는 정교하고 規模도 상당히 크다. 예를들면 中央大街南部西側에 있는 하나의 寺址는 基壇의 東西 길이가 52 m, 南北 너비가 30.7 m이다. 基壇礎石은 잘 배열되어 있고 그 四周에 구멍을 뚫고 돌을 끼워 넣었다. 寺址附近에서 자주 銅佛, 陶佛 및 建築物殘片들을 採集하였다. 淸初에 그 寺址基壇上에 “興隆寺”를 建立하여 俗稱 “南大廟”라고 불렀고 그후에 火災를 당하자 咸豐年間に 再次重建되었다가 1949年以後에 수차의 보수를 거쳐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다.

石燈과 石佛：이것들은 外城內에 지금까지 保存된 2點의 渤海遺物(사진 1)이다. 淸初에 張賁의 <白雲集>에 다음과 같이 証述되어 있다. “城南에 古寺가 있는데, 그안에 돌을 조각하여 大佛을 만들었다. 그 높이는 6尺으로 風雨에 浸蝕되고, 이끼가 끼어있다.……앞에 石浮屠가 있는데 八角形이다.” (“城南有古寺, 鑿石爲大佛, 高丈有六尺, 風雨浸蝕, 苔蘚班然. ……前有石浮屠, 八角形.”)

石浮屠는 바로 石燈인데, 渤海때부터 保存되어온 唯一한 大型石造 建築으로서 12塊의 玄武岩石을 雕鑿하여 쌓았다. 石燈底部는 塔基壇인데 그 基壇上은 蓮花塔座이고, 이 塔座上에 圓柱形柱石을 세우고, 柱石위에는 仰蓮花石托이 놓여있고, 이 仰蓮花石托위에는 塔室이 놓여 있는데, 塔室은 中空으로 八面體이며 每面은 모두 透雕된 窗戶와 窗檻을 가지고 있다. 塔室은 焚香과 燒紙하는 곳이며, 위에는 塔頂覆蓋가 있고, 塔頂은 八角傘形이며, 其 八角과 塔室八面은 서로 對稱되어 있고 塔頂周圍에는 조각되어 있고, 檐瓦, 塔頂과 塔室이 相接된 곳에 中國傳統의 斗拱建築形式이 조각되어 있고, 塔頂上은 相輪인데, 이 相輪은 만두형의 塔刹冠頂이다. 石燈의 전체 높이는 6 m이다.

大石佛은 길이가 一丈(6尺) 정도이며, 身에는 袈裟를 걸치고 蓮花石座上에 앉아 있다. 大石佛은 淸初에 保存이 良好하였으나 後에 여러차례 破損당하고 同時에 여기저기 옮겨졌으나 1949년 이후에 다시 原位置에 옮겨서 補修復原하였다.

2) 內城址

內城은 長方形으로 官府衙署, 官僚府宅의 所在地이며, 渤海王室遺族의 禁苑 亦是 이곳에 位置하고 있다. 現在 遺址는 다만 部分 內城牆과 禁苑만 있다.

內城牆：주위 길이가 45k m, 다만 部分 地段의 保存이 상당히 良好하다.

禁苑：俗稱으로 “御花園”, 內城東垣에서 西쪽, 宮城東垣에서 東쪽으로 주위 길이 약 1.5 km이다. 苑中에 타원형 湖池遺迹이 있는데 面積이 약 20,000 m²로 지금은 맥우 낮은 웅덩이가 되어 雨期가 되면 물이 고인다. 湖池 兩側에 假山址가 있는데 現殘高가 3~5 m이다. 北岸池中 가까이 2個 相向의 小丘가 있는데 丘上의 들꼴에 의해서 유리조각, 기와와 柱礎石이 가려져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丘上에 亭子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同時에 小丘間사이에 小橋가 있었던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3) 宮城址

宮城：長方形，渤海王室居住와 統治權力을 行使하던 장소，今日 遺址는 宮牆，宮殿，石井等이 남아 있다.

宮牆：주위 길이 2.5 km，玄武岩片으로 쌓았으며 現殘垣이 6~7 m，너비 2—3 m 높이를 가지고 있다. 東，西，南宮牆의 中部에 各各 一門址가 있으며 東，西二門規模는 상당히 작고，南門規模는 상당히 큰데，이것이 宮城의 正門이다. 正門의 基台는 現高 6 m，東西길이 60 m 이상，南北 너비 20 m 이상이다. 基台上에 四行으로 직경 70 cm 되는 柱礎石이 원래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웅장한 箭樓建築이 存在한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清末에 基台上에 一座 寺院을 建立하였다：英靈寺인데 俗稱 五風樓이다. 現地 답사와 發掘을 통하여 五風樓兩側에서 또 兩個側門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東側門址(사진 2)와 西側門址이다.

宮殿：五風樓에서 北쪽으로 宮殿址가 있는데 모두 五基로서，이것들이 一條 南北向의 中軸線上에 排列되어 있다. 五風樓에서 약 200 m 거리는 第一殿址로서 俗稱 “金鑾殿”이다. 宮殿基台는 긴돌로 쌓아 現高 約 2 m이며，原址排列의 大型礎石 40 여개가 보존되어 있다(사진 3). 殿址 東西 길이는 64 m，南北 너비 27 m로서 이것은 宮中에서 主要 宮殿의 하나이다. 殿 앞의 200 m와 東西 100 餘 m 에는 建築흔적이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커다란 殿前廣場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第一殿에서 약 150 m 거리에 第二殿址가 있다. 面積으로 最大한 곳이 東西 82 m，南北 28 m이다. 殿前廣場은 第一殿에 比하여 4 분지 1 이 된다. 第二殿에서 北으로 130 m 거리에 第三殿址가 있는데 基址上에 柱石保存이 完全하여 當時 건축운곽을 발견할 수 있다. 第三殿의 북쪽이 第四殿址인데，殿址가 상당히 낮고，建築遺址가 分散되었는데 다만 柱礎石이 原地에 잘 배열되었다(사진 4).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수채의 방이 組成된 것이다. 房과 房사이는 廊道도 연결(相通)되었다. 거기에서 다시 北쪽으로 第五殿址가 있는데 北牆가까이에 접근하고 있어 上述의 殿들보다 宏大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實地調査에 의하면 各殿兩側에 모두 配殿(副殿)을 가졌고 主殿과 함께 一組建築群을 組成하였다. 五組宮殿建築群兩側에 長廊址가 있는데 各殿과 연결되어 있다. 東側長廊址의 廊柱礎石은 지금도 여전히 井然有序로 原址에 排列되어 있다.

八角石井：文獻上에 記錄되어 있다. 張賁의 <白雲集>에 “별도로 小城이 있는데 宮禁같고，左右에 石井이 두곳 있는데 하얀 장방형돌으로 쌓은 八角形이다”(“別有小城，似宮禁，左右石井二，白石鑿砌，六角形.”). 사진 5의 石井은 第二殿東側에서 발견된 곳이고，西側의 石井은 지금 存在하지 않고，傳言에 의하면 이것들은 宮庭의 飲用水井이다. 그것은 전체가 灰白色玄武岩으로 쌓여졌고，井口는 八角形으로 대단히 정성을 들여 만들었는데 當地人들은 그것을 “八寶琉璃井”이라고 부른다. 清代의 文獻들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우물안에서 鐵砧，銅鏡과 銀牌等이 出土된 일이 있다한다. 1949 年以後에 石井을 보수하고 井上에 亭子를 건립하였다.

4) 城郊外遺址

古墳：上京郊外의 渤海墓는 平民墓와 貴族墓로 나눌 수 있다. 平民墓는 城의 서쪽 江對岸의 大朱

屯一帶에 分布되었는데 이미 발견된 것만 數百基가 된다. 貴族墓는 城의 북쪽 牡丹江對岸의 三靈屯 및 風水歲子一帶에 자리를 잡았다. 平民墓는 一般的으로 雜石을 쌓아 만들었는데 상당히 간단하고 遺物도 대단히 적다. 貴族墓는 規定되어 있고 寬大하며 正성을 들여 만들어졌다. 上京北城垣에서 북쪽으로 6 km 거리에 三靈屯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一基 貴族墓가 있으며, 當地에서는 이 古墳을 三靈墳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古墳은 南北길이 20 m, 東西 너비는 14 m 나 된다. 墓內가 前室, 主室 및 墓道의 3部分으로 나누어졌는데 主室은 너비 2.19 m, 길이 4 m, 높이 약 1 m로 四壁을 玄武岩製長石으로 쌓았으며 大石板으로 封頂하고 흙으로 덮었다. 墓頂에 礎石四個가 있는 것은 이곳에 亭樹一棟을 建築하였던 것 같다. 아까울게 이 古墳은 清代에 이미 도굴당하였다.

古橋：上京城 西部와 北部의 上官地, 牛場, 下官地, 勝利屯等地的 牡丹江上에 다섯곳의 渤海古橋 遺址가 발견되었다. 上官地의 古橋地는 當地에서 “七孔橋”라고 부르는데, 현지조사에 의하면 七墩(받침대) 八孔橋이다. 現 橋墩(다리 받침대)의 實測에 의하면 橋墩사이의 거리는 17 m이며, 모두 大塊熔岩으로 만든 一座石墩木橋(돌받침대에 나무다리)이다. 기타의 다리들은 上述한 것과 대체로 같다. 五橋가 牡丹江 江上에 놓여진 것은 당시의 上京龍泉府의 繁華함과 交通發達, 地理位置의 重要性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3

近年來 上京龍泉府遺址에서 많은 遺物이 발견되었다. 발견유물은 陶器, 鐵器, 銅器, 石製器, 佛像과 建築材料 등으로 이 중에서 建築材料가 가장 많다. 特別한 사항은 건축용 기와가 널리 흩어져 있고 건축용 石材도 적지 않으며 그다음이 벽돌과 건축용 장식품이다. 渤海上京 建築用 기와는 대부분이 布紋灰瓦인데 그 種類와 形制는 일치하지 않다. 보편적인 것이 大型板瓦(암기와), 筒瓦(숫기와)와 蓮花紋瓦堂이다. 渤海釉瓦 交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은 宮城과 禁苑에서 대부분 발견된 綠色, 黃色의 板瓦, 筒瓦 등이다. 磚의 數量은 相對的으로 작고, 規格形制 亦是 一致하지 않다. 그것들은 大型方磚, 長方磚, 그리고 寶相花文磚, 忍冬文과 繩文磚等이다. 이외, 上京遺址에서 건축용 白灰와 鷓尾等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當時의 宮殿, 樓閣이 얼마나 輝煌燦爛하였는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은 渤海建築用 瓦上에 많은 文字가 印刻된 것이다. 考古學者들은 이것을 “文字磚”(銘文瓦)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渤海文字를 研究하는 珍貴한 資料가 된다. 발견된 文字瓦의 글중에 漢字가 10 분지 8을 차지하고 있다. 吉林省에서 出土된 漢文의 “貞惠公主墓碑”에서 보면 渤海가 漢字使用이 보편화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渤海는 佛敎를 篤信하였다. 上京寺址 및 其 附近에서 많은 千姿百態의 小佛像, 銅佛, 鐵佛, 陶佛과 金銅佛이 出土되었는데, 어느 것은 背部에 접착되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原來 寺內의 牆壁上에 接착되어 있었던 “千佛”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千佛”의 體態, 服飾, 雕造手法이 中原의 “千佛”과 같은 것은 唐代渤海地區 雕塑, 彩繪, 冶鑄工藝수준이 高度로 받

전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1975年 上京遺址東面の 土台子大隊에서 一組의 舍利函이 出土되었다. 이 사리함의 最外層은 石函, 거의 正方形으로 높이 50 cm, 내면에는 鐵函, 銅匣, 漆匣, 銀合의 순서로 되어있는데 점점 縮小되어 한 셋트를 이루었다. 銀合속은 銀質挑形瓶이고, 瓶은 小巧玲瓏(곱고 투명한 모양)이며, 壁의 얇기가 계란껍질같은 유리병이다. 유리병내에는 “舍利” 5珠가 들어있다. 이 舍利函의 造型, 製飾圖案은 甘肅省涇川縣出土의 一組 唐代舍利函과 꼭 같다. 이것은 또한 1,000年前에 渤海邊遠地區와 中原內地가 이미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說明하여 준다.

渤海上京龍泉府는 中國東北時代 가장 이른 시기의 保存이 상당히 잘된 古代都城의 하나이다. 과거 이 遺址가 여러차례 도굴과 파괴를 당하였지만 지금은 上京龍泉府遺址가 全國重要文物保護單位가 되어 政府의 保護를 받고 있다. 현재 이곳은 丙外의 많은 考古學者와 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1. 石 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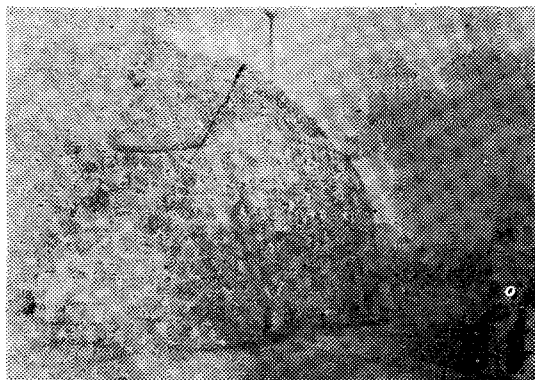


사진 2. 五風樓東側門址



사진 3. 第一宮殿址基台



사진 4. 第四宮殿址 및 柱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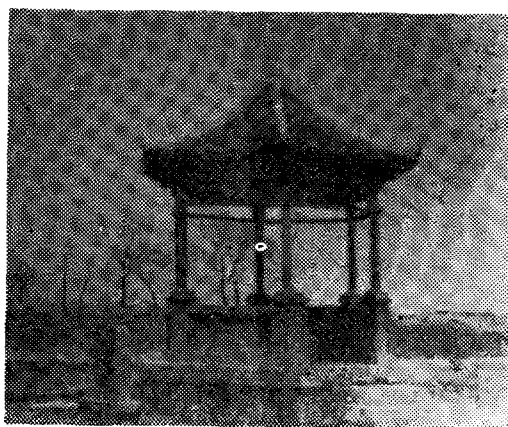


사진 5. 八寶琉璃井